

# 광주시, 폭염 총력전... 취약계층 구석구석 살핀다

### 고광완 부시장, 계림동 쪽방촌 방문 폭염대응 현황 점검 무더위쉼터·응급쉼터 운영 등 폭염민감대상자 보호 강화 ICT·쿠폰·건강카드 등 생활밀착 대응으로 시민안전 확보

장마 없는 폭염이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쪽방촌 주민, 배달노동자, 건설노동자,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구석구석 살핀다.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은 11일 동구 계림동에 위치한 쪽방주민 밀집 지역을 찾아 폭염 대응체계를 직접 살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광주시가 추진하는 '폭염대응 노숙인 종합보호대책'과 '쪽방 거주민 등 민감대상자 보호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고 부시장은 쪽방촌에 마련된 응급쉼터와 냉방물품 비치 상태 등을 점검하고, "폭염 특보 시에는 어르신과 노숙인 등 폭염 민감계층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광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쪽방 주민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폭염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막기 위해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냉방용품, 응급쉼터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쪽방

상담소, 들랑날랑커뮤니티센터, 노숙인일시보호소(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등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며 긴급 잠자리, 냉방물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노숙인 보호 인력을 투입, 주·야간 순찰을 강화하는 등 현장 지원을 꼼꼼히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지원으로 쪽방주민 40명에게 폭염 대응 키트를 제공했으며, 하절기 동안 5개 자치구의 소규모 시설 거주민에게는 재난구호기금 6600만원을 투입해 냉방용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폭염대책 기간을 지난 5월 1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로 설정하고, 이중 7-8월을 중점 추진기간으로 지정해 폭염 민감대상자 15개 유형을 신체·사회·직업·경제 분야로 나눠 맞춤형 보호조치를 시행 중이다.

특히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약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 1000여 명이 매일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독거 어르신 8000여 가구에는 ICT(정보통신기술) 장비를 활용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



강관리 전문인력의 방문 진료와 함께 부채·쿨마스크 등 건강물품도 지원된다.

직업적으로 폭염에 노출된 농업인, 건설근로자, 이동노동자 등에 대한 예방 활동도 병행된다. 건설 현장에는 '2시간 작업, 20분 휴식' 권고되며, 냉방시설과 냉수·쿨링용품이 구비된다.

특히 폭염 속 야외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쉼터 쿠폰 지급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다. 이 사업은 광주경제진흥원지리재단과 광주노동권익센터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진행하며, 배달노동자 및 대리운전기사 등 야외 활동이 잦은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쉼터 이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광주시는 배달노동자 150명, 대리운전기사 500명 등 총 65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만5000원 상당의 편의점 쿠폰을 지급

한다. 쿠폰은 안전교육과 노동환경 설문조사를 이수한 후 제공되며, 이동노동자들이 편의점 등의 실내 공간에서 일시적으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폐지 수집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실내 또는 그늘에서 재활용품 분류 작업을 하는 '자원재생활동단'을 8월 한 달간 운영해 폭염 기간 저장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건강과 안전을 동시에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시내 곳곳에 설치된 681개 그늘막, 24개 쿨링포그, 2개 클린로드를 상시 가동하고, 1500여 곳 무더위 쉼터에 냉방비를 지원하는 등의 기존 대책에 더해 살수차 운행, 생수 나눔 캠페인 등 폭염 대응 조치를 확대했다. 또 재난관리기금 5억원을 긴급 편성해 즉시 자치구에 교부했다. /박도일 기자



## 서구, 다중이용시설 폭염 대응 캠페인 실시

### 폭염 취약계층 대상 안전수칙 안내 및 얼음물·쿨패치 제공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11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농성역·상무역 등 지역 다중이용시설 일대에서 '폭염 대비 온열질환자 예방·대응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철 장기화되는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온열질환 예방을 통해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구는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 봉사단 등 100여 명과 함께 농성역에서 시작해 양동시장역, 돌고개역, 상무역 등 관내 지하철역을 순회하며 야외근로자는 물론 어린이, 만성질환자, 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게 얼음물, 쿨패치,

폭염 대응 수칙 안내문 등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한편 서구는 여름철 폭염 대책 기간(5.15-9.30) 동안 ▲살수차 주말 확대 운영 ▲무더위쉼터 운영 실태 점검 ▲폭염 대비 취약지 예방 ▲SNS 및 누리집을 통한 예방수칙 홍보 ▲민관 협력 캠페인 등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배 부구청장은 "기후변화로 폭염이 일상화된 만큼 미리 대비하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폭염 등 관내 지하철역을 순회하며 야외근로자는 물론 어린이, 만성질환자, 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게 얼음물, 쿨패치, /박석우 기자

전라남도는 보건복지부의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공모에 'AI 반려견 활용 정서건강 원스톱 지원 구축 사업'이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밝혔다.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공모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진행된다.

전남도의 AI 반려견 활용 정서건강 원스톱 지원 구축 사업은 외부 활동이 어려운 고립형 독거노인 100세대에 강아지 형태의 인공지능 돌봄 로봇을 보급,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고립 해소를 돕는 것이 핵

## 전남도, 'AI 반려돌봄 로봇' 스마트 사회서비스사업 선정 자치단체 중 유일... 어르신 정서적안정·사회적고립 해소 기대

심이다. 돌봄 로봇은 어르신에게 말을 걸고 기분을 묻는 등 일상 속 대화 상대로서 정서적 교감을 제공하며, 식사 시간이나 약 복용 시간도 챙겨주는 스마트 돌봄 파트너 역할을 한다.

특히 응급상황 시 119에 연계돼 골든타임 내 위기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보호자는 전용 앱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정서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돌봄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사업은 컨소시엄 형태로 전남도가 총괄 주관하며, 전남사회서비스원이 실무기관으로 함께해 추진된다. 돌봄 로봇 제조사인 ㈜효돌과 대상자 선별·관리 역할의 주택관리공단 목포지역단이 협력 파트너로 참여해 현장 중심의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목포 상동 주거복지지원센터에 거주 중인 고립형 독거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8월께 본격 보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김지희 ㈜효돌 대표는 "전국 최초로 준비한 반려견 모양의 돌봄로봇 지원사업이 선정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기술을 기반으로 한 돌봄 서비스가 전남도에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전남이 디지털 복지 선도지역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기술을 복지에 적극 접목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실질적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염선호 기자

광주 동구(정장 임택)는 폭염 속 쪽방촌 거주민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착한 나눔 바우처'와 '기후대피소 쿠폰'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시행에 나선 이번 사업은 쪽방촌 거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올해도 쪽방촌 거주민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한다.

'착한 나눔 바우처'는 식료품, 생필품 등으로 교환하거나 식당에서 식사가 가능한

## 쪽방촌에 착한 나눔 바우처·기후대피소 쿠폰 전달

### 거주민 1인당 8만원 상당, 식료품 생필품 등 구입 가능

종이 쿠폰 형태로, 쪽방촌 거주민에게 1인당 8만원 상당이 지급된다.

또한 '기후대피소 쿠폰'은 폭염 시 외부 활동이 어려운 거주민들이 지정된 목욕탕 공간에서 시원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목욕탕 이용권 형태로 1인당 10매가 제공된다.

착한 나눔 바우처는 지정가게 16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기후대피소(목욕탕)는 1곳이 운영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쪽방촌 주민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올해도 이 사업을 이어가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촘촘한 복지정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쪽방 거주민들이 무더위를 피해 이용할 수 있도록 쪽방 상담소가 무더위 쉼터로 오는 9월까지 운영되며, 전국재해구호협회와 광주주거복지센터가 기부한 기후재난 폭염 대응 키트 12종 세트(쿨매트, 베개 세트, 냉기 선풍기, 부채, 식염 포도당 등), 선풍기를 각각 쪽방 거주민 40세대에 지원했다.

/오철수 기자

## 광주 남구, AI 활용 '스마트 공직사회' 도래

### 역량 강화 교육 시행... 생성형 AI·ChatGPT 등 실무에 적용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AI 기술을 활용한 업무 혁신을 가속하면서 스마트 공직사회 도래에 걸맞은 직원 업무 경쟁력까지 강화하고 있다.

남구는 11일 "공공행정에 AI 기술을 도입해 주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성형 AI의 실무 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해 7월 한달 동안 직급별로 지식재산 저작권 이해 및 AI 활용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대대적으로 시행한 이유는 AI 기술이 공공행정에서 업무 효율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결정 등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인공지능이 단순 챗봇을 넘어 증명서 발급 등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AI 국민민서 사업을 구상 중이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AI 기반 민원 상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면서 주민과의 소통 방식까지 변화를 주고 있다.

이번 교육은 오는 31일까지 직급별로 나눠 5차례에 걸쳐 펼쳐지며, 모바일 AI 프로그램 앱을 이용해 실제 임무를 수행

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특히 남구는 AI 기반 업무 혁신과 실제 업무에 해당 기술을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전문 교육기관에 의뢰해 직급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선보인다.

4-6급 간부 공무원은 이 기간에 생성형 AI와 ChatGPT 활용, 개인정보 보호 이슈 및 주요 사고 사례 등을 학습하며, 7-9급 공무원은 AI 기술에 기반한 공문 및 민원 답변용 프롬프트 작성을 비롯해 보고서·기획안 작성, 지식재산 저작권 이해 등을 배울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AI 기반 차량 흐름 분석을 도입하거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데이터 기반 접근법을 강화하면 정책 효과까지 예측하는 시대가 왔다"면서 "더 스마트한 공직사회로 전환해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채일 기자

##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